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 서술 시론

우신영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국어교육 전공

foxll@snu.ac.kr

I. 머리말

II.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 서술의 전제

III.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 서술 내용:

1930년대 소설사를 예로 하여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일반 문학과 구별되는 교육용 문학의 필요성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 서술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서술된 문학교육의 목표 항목에서는 문학사 이해가 문학 이해의 바탕¹⁾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학사의 교육적 가치가 학습자의 문학능력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국면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교수-학습 지침 항목에서 문학사가 언급된 부분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오히려 문학사의 기능이 뚜렷해지는 국면은 작품 감상을 위해 제공될 지식의 목록, 교수학습 자료 선정의 이념적·비평적 기준²⁾, 문학 작품의 시대 구분 준거 등 문학사의 교육적 활용성이다. 문학교육에서 문학사의 기능은 이렇듯 얽연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학사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학사를 이는 것’과 ‘문학능력을 기르는 것’ 사이의 매개 항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문학사 교육 논의들은 문제의식에서는 대부분 일치하면서 교육적 제안은 상당히 다양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문학사는 문학작품과 문학적 사건들의 통시적 집적물이라 할 수 있다. 문학사는 문학의 역사라는 점에서 역사 서술 일반이 지니는 ‘기억과 기억의 투쟁’이라는 구성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사 교육은 문학사의 역동성과 계열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듯 역동적이며 구성적 성격을 가진 문학사가 교육의 장에서는 지식의 정태적·명제적 서술이라는 부정적 시각³⁾에 부딪히고 있다.

1)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II. 목표. 나. 문학의 실제적 제 양상을 이해하여 문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심미적 안목을 높인다. 문학의 실체는 개별적인 작품으로 구현되며, 이 개별 작품들은 구체적인 시공간의 특정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 이처럼 개별 작품들이 다양한 맥락 속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맥락에 작용하며, 나아가 문학사라는 일정한 흐름을 이루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가 문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2)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교수학습 자료 선정에서 유의사항. (가) 문학사적 기준과 비평적 안목에 비추어 타당하고 진이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한다.

3) 이러한 부정적 관점은 문학교육에서뿐 아니라 몇몇 문학연구자 사이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 문학연구에서 문학사의 퇴조현상에 대해서는 박현호, 「‘문학’ ‘史’ 없는

이는 첫째, 문학사 교육에서 중심이 되는 문학사 지식의 특성으로 인해 과거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제기되었던 비판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문학사 교육은 정교한 교육적 시각과 설계가 없다면 국문학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교육 국면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교과교육학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용 문학사나 문학사 교육방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문학 교과서에서 학습자가 접하는 ‘문학사적 지식’과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실제 학습자의 문학경험과 유리되어 문학에 대한 학습자의 심적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며 서술된 문학사로 채호석, 김은정 등이 시도한 청소년 문학사⁴⁾를 꼽을 수 있다. 문학사적 이야기나 특정 인물들의 대결 구도에 주목해서 독자의 용이한 접근을 도모하는 장덕순의 『이야기 국문학사』⁵⁾, 이명구의 『이야기 한국고전문학사』⁶⁾, 정출현 외의 『고전문학사의 라이벌』⁷⁾ 등도 주목할 만하다. 흥미로운 문학사적 이야기들을 들려주거나 시대를 풍미했던 문학인들을 대결 구도 속에서 소개하기도 하고, 문체의 난이도 조절과 풍부한 삽화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문학사와 독자 사이의 강고한 경계를 연화(軟化)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주로 작가 전기 중심의 문학사 서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서술에서는 문학사 전체를 꿰뚫는 명확한 서술의 관점이나 원리를 찾아내기 어렵다.

교육용 문학사가 문학교육의 일반 목표인 문학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서술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서술 방향과 내용 구성이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학사 교육이 가진 성격상 교육용 문학사가 기존 문학사를 전복적으로 재서술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학습자가 문학사의 흐름과 그 흐름의 동력을 알고 이를 ‘문학능력의 신장’에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시대의 문학연구』, 『역사비평』 75(2006) 참조.

4) 채호석, 『청소년을 위한 한국현대문학사』(두리미디어, 2009); 김은정·류대곤, 『청소년을 위한 한국고전문학사』(두리미디어, 2010).

5) 장덕순, 『이야기 국문학사』(새문사, 2001).

6) 이명구, 『이야기 한국고전문학사』(박이정, 2007).

7) 정출현 외, 『고전문학사의 라이벌』(한겨레출판, 2006).

다. 하나의 문학사관에 입각하여 정교하게 짜인 플롯의 문학사 서술을 할 수 있는 사가(史家)를 키워내는 일이 문학교육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학능력은 문학작품과 문학사에 대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능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의 유동성과 그 동력을 학습자가 인식하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용 문학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학습자의 경험과 참여를 통해 문학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⁸⁾의 문학사 서술을 위해 다양한 서술방식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시도의 하나로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의 서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학사는 범박하게 말하면 문화사의 일부이다. 그런데도 교육용 문학사 서술에 문화사적 접근의 방향과 내용을 새삼 강조하고자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문화는 삶의 방식⁹⁾이라는 점에서 문화사를 안다는 것은 삶의 방식의 역사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사를 학습하는 과정은 당대인들의 삶이 어떠한 패턴으로 운위되었는지, 그 시대의 구체적 풍경은 어떠했고 예술은 그러한 삶과 시대의 무늬들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했으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의미화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해석자를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삶 속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가령 우리가 특정 지역의 음식문화사를 학습한다면 우리는 선인들이 어떤 음식을 마련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즐겼으며, 그러한 음식문화가 어떤 지점들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의 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흥미롭게 탐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문학사 교육이 학습자에게 이러한 참여감과 실감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하기 어렵다. 하위징아(Johan Huizinga)는 역사에서 인간이 아닌 일반화된 설명만 볼 수 있다면 그 역사는 ‘사막’이라고 단언한다. 교육용 문학사 역시 학습자들로 하여금 선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실감과 그에서

8) ‘학습자 중심 교육’이란 교육 설계의 초점이 학습자의 흥미, 관심, 요구에 있는 교육을 의미하며, 그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ㄱ.학생들로 하여금 사실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문제와 쟁점을 규명하게 하여, 재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격려한다. ㄴ.접근방법의 다면성과 다양성을 건지하고, 개인 과제와 소집단 과제 및 여타 교수절차를 결합한다. ㄷ.학생들의 창의력과 적극적 표현을 촉진한다. 현종의 외, 『교육학 용어사전』(동남기획, 2002), 735-736쪽.

9) Peter Burke 지, 조한욱 역, 『문화사란 무엇인가』(길, 2006), 65쪽. “지난 30여 년 동안 역사가들이 사용한 문화라는 용어의 용례는 서서히 변화해왔다. 한때는 고급문화를 가리키던 이 용어가 이제는 일상적인 문화도 포함하기에 이르렀으며, 바꾸어 말하면 관습과 가치와 삶의 방식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파생된 정서적 연대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이 글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과 문화사의 관계를 살피고,

둘째, 교육용 문학사 서술에서 문화사적 접근의 유효성과 서술 방향을 밝히며,

셋째, 이러한 서술 방향에 따라 1930년대 소설사를 중심으로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II.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 서술의 전제

1. 문학과 문화사의 관계

문학사는 문학의 역사인 동시에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의 지평과 역사의 지평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내장한다. 여기서는 그 매개 향으로 문화를 상정하고 문화사적 접근이 문학사 서술에 유의미함을 밝히고자 한다. 문학사는 단순히 문학적 작품의 집적물만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문학적 사건의 역사를 다룬다. 여기서 사건은 사고와 다른, 구조연관적인 것이다. 사고는 사고 이전으로 회복을 꾀하는 주체를 요구하지만 사건은 그것을 통해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문학사에서 무엇을 다룰 만한 사건, 즉 문학사의 전반적 구조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 배열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문학사는 예술사라는 점에서 선정기준에서 개별 작품의 미학적 성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러한 성취는 창작과 수용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판단 가능하다. 특히 소설의 경우 스토리 차원에서뿐 아니라 맥락과 스토리, 담론의 차원을 상호 조화해야만 문학사적 성취가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채만식의 「탁류」는 미두에 빠진 정 주사나 육체적·정신적으로 뒤틀린 불구자 장형보와 같은 인물은 물론이고 소설의 중심에 놓인 초봉이라는 인물 역시 학습독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성격과 행위를 보인다. 스토리 차원의 검토에 그칠 경우 교육용 문학사에서 이 작품의

서술 여부를 재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여인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려내는 「탁류」의 담론방식이 부정한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문학적 대응이자 전략이며, 이를 통해 1930년대 문학과 문화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그 적절성과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탁류」는 여전히 교육용 문학사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학사 서술에서는 문학 텍스트 내적 지점뿐 아니라 그 텍스트의 사적 의미를 원근법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외재적 지점, 즉 일반 문화사가 요구¹⁰⁾된다.

문학사를 문화사의 일부로 보는 것은 이미 임화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임화는 문학사가 문화사, 나아가 사상사(정신문화사)에 포섭되는 구도를 통해 신문학사를 이해하고 서술한다. 한국의 신문학사는 근대문화사의 일부이며 이 근대문화는 근대사상의 일부이므로 신문학사는 근대사상을 그 내용으로 삼게 된다. 물론 임화가 문학사를 사상사로 보면서도 양식의 역사임¹¹⁾을 강조했듯이 문학사 서술에는 양식의 문제가 존재하며, 일반 문화사로 환원될 수 없는 잉여지점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문학사와 문화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세 층위로 나누어 살핍으로써 환원주의적 오류를 피하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문학사 역시 문학의 내재적 구조에 대한 탐사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고, 그러한 내재적 구조가 문화와 맺고 있는 관계를 통시적으로 검토¹²⁾해야 한다. 문학은 당대 문화의 반영물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다층적으로 문화와 관계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계 양상을 ① 문학 속에 형상화된 문화, ② 문학 형식에 작용하는 문화, ③ 문학 소통에 관계하는 문화 등의 세 층위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한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10) 이러한 문화사적 접근은 단지 문학사 서술을 위해 일반 문화사를 빌려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학은 문화의 일부로서 문학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전체 문화의 역사가 균형 있게 기술될 수 없음을 상기한다면 오히려 문학사 서술의 방향이 문화사 일반을 서술하는 데 도전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시각 역시 가능하다.

11) 임규찬 외 편, 『임화 신문학사』(한길사, 1993), 384쪽.

12) 셰익스피어 연구자인 그린블랫은 문학사 연구에서 문화의 시학 연구로 방향을 전회하면서 문학과 사회문화 사이의 교환,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Stephen Greenblatt, *Shakespearean Negotiations: the Circulation of Social Energy in Renaissance England*(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Stephen Greenblatt, *Hamlet in purgatory*(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이 작품은 그것이 그려내고 있는 문화와 그것이 돌출된 문화 및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모두 질문되어야 한다.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문학사 서술은 위의 세 층위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 대해 문학사는 문학의 내재적 특성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은 오히려 문학의 미학적 형식과 개성이 집단적 삶의 양식과 관계하며, 문학사가 삶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2. 교육용 문학사에서 문화사적 접근의 의미

학습자는 문학시간에 각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문학사적 지식을 배우고, 한국문학사의 전통과 흐름에 대한 설명문과 연표를 암기하며 문학사적 기준에 비추어 선정된 작품을 문학사적 기준에 의해 분류된 시대 구분에 따라 묶어 배운다. 아마 학습자가 나름대로 구축해왔던 문학경험과 교육용 문학사는 대상 작품이나 작품 간의 계열적 연결성에 큰 간극이 있을 것이다. 반면 비평가들의 독서, 즉 현장비평은 문학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작은 글쓰기와 큰 글쓰기’¹³⁾가 조우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워진 서술자¹⁴⁾가 구획 지어 놓은 시대 구분 안에서 각 시기의 장르적 특성이 짧게 언급되고 그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 제목이 나열되는 식의 교육용 문학사는 정전을 숙독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학습자에게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추상성은 바로 교육용 문학사에서 나열되고 있는 문학사적 정전과 학습자의 삶-문학경험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용 문학사는 선사·고대관, 중·근세관 식의 분류기준으로 견고하게 나누어진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라 각 시대문화 속에서 욕망하고 행위하고 살아간 개인 및 집단들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문학사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개별 문학경험을

13) 김윤식, 『작은 글쓰기, 큰 글쓰기』(문학수첩, 2005).

14) 양호환, 「역사 서술의 주체와 관점」, 『역사교육』 68(1998), 20쪽. “역사교과서 서술방식은 기성의 학문적 역사 서술을 되도록 유사하게 간주된 형태이면서도 학술 논문보다 더욱 집요하게 서술의 주체와 관점을 감춘다. [...] 즉, 서술의 주체는 더욱 완강히 그 모습을 감추는 것이다. 이럼으로써 이른바 진리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문화사적 지리감각을 통해 배치하고 문학 텍스트 내외의 문화적 요소들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학과 문화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하나의 문학작품 또는 한 장르의 주도적 형식은 어떤 문화에서 탄생하는가. 문화의 변화에 따라 문학의 내용이나 형식, 장르 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문학과 수용자의 관계는 문화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문학은 어떤 문화적 변화를 촉발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변수가 어떻게 개별 작품의 미적 특성으로 구현되고 작품의 사적(史的) 가치를 담보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교육용 문학사는 다양한 문화적 시스템과 구체적인 삶의 양식들을 가로지르며 학습자의 풍부한 감상을 자극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질문들은 학습자의 이후 문학경험으로 전이되면서 문학사가 정제된 것이 아니라 부단한 문화의 전개 속에 있는 것이며, 학습자 역시 문화의 흐름을 구성해나가는 일부임을 주지시킴으로써 문학작품에 대한 독자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한다.

3.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 서술의 방향

1) 시대적 감수성의 전달

학습자들은 문학사 교육을 통해 어떤 시대의 주된 정서와 경험에 대한 지식,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러한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서와 경험을 형상화해낸 문학언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 결과 습득된 문학사 지식은 학습자에게 시대적 감수성의 변천을 파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서적 지식(emotional knowledge)이라 할 수 있다. 문학사가 정서적 지식일 수 있음은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문예사조나 문학적 용어를 작품에 앞서 명제적으로 제시했던 기존의 교육용 문학사에서는 문학사 지식의 정서적 성격이 부각되지 못하였다. 가령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당대에 던졌던 문화적 충격과 그 형식적 특성의 사적 전후관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남선의 시는 ‘신체시’라는 시가 형태부터 암기하거나, 1930년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1930년대 문학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으로 양분된 시대’라는 명제¹⁵⁾부터 암기하게 된다면, 이는 문학사가 문학감상과 분리된 지식으로 존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10년 현재 10대의 학습자가 「무정」 속 인물의 행위와 감정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삼랑진에서 이루어지는 네 남녀의 장엄한 맹세 장면에서 오히려 학생들은 실소하기도 한다. 과거의 연구자나 독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해되어 오히려 연구 대상이 아니었던 것, 이를테면 여학생을 따라한 영채의 머리, 남녀칠세부동석의 관습을 넘어 무릎을 맞대고 이루어지는 영어 과외의 의미 등을 살피고,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묻는 형식의 질문이 선형을 아연하게 만든 까닭, 이광수 소설이 당대에 미쳤던 영향력 등을 섬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이 소설을 1910년대 신소설의 교훈적 태도와 1930년대 풍자소설의 냉소적 태도 사이의 어떤 지점에 놓고 바라보았을 때 학습자들은 무정 속 시대적 감수성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문학사는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문학경험을 방해하는 추상적 언술이 아니라, 학습자의 공감적 문학경험을 도와주는 촉매가 될 수 있다. 공감은 사적 맥락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대적 감수성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시스템에 주목하는 것은 문학사적 지식을 통해 시공간을 확장하면서 이루어지는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삶과 문학작품을 연계시키고 문학 텍스트가 서술되고 있던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선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시대적 감수성을 전달하는 문학사를 위해 문학작품 안팎을 둘러싼 풍속과 문화에 대한 해석적 서술을 활용할 수 있다. 풍속-문화는 주로 생활사, 미시사, 생활세계 등의 개념과 중첩되어 사용되는데, 특히 문학 연구에서 풍속과 문화는 일상생활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조건들과 제도들에 대한 풍부한 포착과 해석을 포괄¹⁵⁾한다. 본격적인 문학연구에서 풍속에 대한 주목은 김남천이 시작하였는데, 그는 풍속이 생산관계의 양식에까지 현현되는 일종의 제도를 말하는 동시에 다시 그 제도 내에서 배양된 인간의 의식적인 제도 습득감까지 지칭하므로, 사회기구의 본질이 풍속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전히 육체화¹⁷⁾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15) 조남현, 「한국 현대문학의 흐름」, 7차 9학년 『국어』교과서, “1920년대 소설이 리얼리즘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과는 달리, 1930년대 소설은 리얼리즘 경향과 모더니즘 경향이 비슷한 힘으로 양분된다.”

16) 김동식, 「풍속·문화·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2001), 73쪽. 풍속 역시 시대를 부조처럼 생생하게 드러내는 풍속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Eduard Fuchs 저, 이기웅 외 역, 『풍속의 역사』 I (까치, 1988), 6쪽.

17) 김남천, 「일신상의 진리와 모랄(5)」, 《조선일보》, 1938년 4월 22일자.

문학사에서 문학작품 속 풍속-문화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문학작품 속의 세계, 그리고 그 문학작품이 창작, 수용된 세계가 구현했던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 나아가 당대인들의 심성구조(mentalite)까지도 사적 맥락 속에서 경험하게 해준다.

이러한 풍속-문화사적 서술이 주는 의의는 단순히 흥미로운 박물지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에게 문학의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참여하는 느낌¹⁸⁾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술은 엄밀한 의미에서 위대한 작가나 왕조 교체를 결정적 지절로 삼는 문학사라기보다는 주제사나 계열사의 성격을 띠게 된다. 최근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는 문화사 서적들, 즉 음식의 문화사, 책과 독서의 문화사, 문화사로부터 접근하는 음악사 등도 개별 주제의 역사를 문화적 의미체계 속에서 살피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다만 문학사는 역사 서술의 하나로 계열성(seriality)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인상주의적 서술의 유혹은 경계되어야 한다. 개별 풍속의 장면 속에서 당대의 상징체계나 시대적 감수성을 포착해내되 그러한 풍속이 다른 시대의 소설들에서 어떻게 문학적으로 의미화되고 있는지 역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2) 역사에 대한 문학적 대응 경향과 역동적 구도 서술

교육용 문학사 서술은 양적인 제한과 함께 다양한 방향에서 가해지는 요구와 검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권위 있는 문학사들의 압축 형태가 되어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현대문학의 기점이나 순수-참여문학 논쟁 등의 갈등적 지식은 충분히 서술되기 힘들었다. 따라서 문학사 지식은 문학정전 자체의 소개와 문예사조의 요약 등으로 수렴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전이 생산, 소통, 수용되어온 역사나 문예사조의 교체는 매우 역동적이며 논쟁적이다. 문학의 역사 속에는 많은 개인과 집단들의 선택과정¹⁹⁾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콰리치가 주장했듯이, 역사는 인간

18) Alfred North Whitehead 저, 오영환 역, 「교육에서 고전의 위치」, 『교육의 목적』(궁리, 2004), 169쪽.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 데는 일반화된 서술이 아니라 시대에서 시대로 서서히 계승된 문양이라든지 생활양식이나 민족의 변천을 보여줄 구체적 예를 통해서 시작해야 한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등 아카이브의 활용 가능성 역시 지적해두고자 한다.

들의 행위에서 유래하므로 역사의 이해는 인간이 이루어온 선택을 재구성하는 작업²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용 문학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삶의 방식, 즉 문화를 선택했던 문학인들의 행위에 접근할 수 있게 서술되어야 한다. 물론 문학사에서 다루는 것은 모든 선택의 역사가 아니라 문학만이 할 수 있는 문학적 선택과 대응의 역사가 될 것이다.

프랑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구성은 이러한 역동적 구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프랑스어 교과서의 1학년 단위 구성²¹⁾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19, 20세기의 문학운동만을 문학사 단위에서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문학사는 거꾸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바르트의 도발적인 논의²²⁾를 의식한 듯한 이러한 문학사 서술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과 밀접한 지식으로서 문학사를 학습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김윤식에 의해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이 제출된 바 있는데, 그는 문학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몇 년에 누가 무슨 작품을 썼는데 그것은 문학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은 개념적 지식일 뿐 체험적 지식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그러한 개념적 지식만으로는 학습자가 삶의 갈등과 존재

19) Theodor Adorno 저, 홍승용 역, 『미학이론』(문학과지성사, 1990), 327쪽. “예술의 역사는 사회의 전체적인 경향에 비추어보아서만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예술의 개별적인 현상을 통해 필연적인 것이 되지는 않는다.”

20) 김우창 외 편, 『103인의 현대사상』(민음사, 1996), 23쪽.

21)

Nathan	Hachette	Hatier
1. 문학운동(문예사조)이란 무엇인가?	1. 이야기 읽기	1. 글쓰기에서 독서까지
2. 진화하는 장르: 극	2. 장르 설정	① 글쓰기
3. 서사 장르의 다양성	① 극	② 쓰기, 출판, 읽기
4. 소설 서사의 기법	② 소설	2. 서사 장르
5. 장르의 속성과 이야기의 전체성	③ 시	3. 문학사
6. 작품의 작가	3. 읽기, 쓰기, 출판	① 극의 역사
7. 책의 발명	4. 주장하기	② 문학 운동(19세기, 20세기)
8. 타자, 문제적 주제	① 제시하기, 설득하기, 논증하기	4. 논쟁
9. 옹호와 비판의 글	② 옹호와 주장	

관련 교육과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수업에서는 프랑스 문학사를 구성하는 주된 문학운동을 대상으로 한다. [...] 학생들은 이와 같이 수업을 통해 주요한 문학운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상의 편의를 위해 1학년에서는 19세기와 20세기 문학문화운동을 다룬다.” 김지영, 「한국과 프랑스의 문학교과서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2004), 70쪽.

22) Roland Barthes, 「교과서에 대한 고찰」, Tzvetan Todorov 외 편, 윤희원 역, 『문학의 교육』(하우, 1996).

방식의 절실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오늘날 학생들의 절실한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작품부터 가르치자고 주장하며, 학생들과 밀접한 세대의 문학 순으로 교육적 순서를 부여²³⁾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은 수용하되 공감의 정도가 반드시 시간적 거리와 반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며, 문학사를 내림차순의 연대기로 서술할 경우 문학사가 전개되어온 과정의 이해가 오히려 난해해질 수 있는 것 역시 고려하고자 한다.

역사에 대한 문학적 대응의 경향과 그 역동적 구도를 강조하는 서술 방향에서는 기존의 문학사에 비해 문학작품이 발표된 잡지, 신문 등의 매체 문제가 부각되고 그러한 매체를 둘러싼 검열이나 수용집단의 문제, 시대별 문인집단과 그들의 이념적 구도, 이들의 대립이 파생시킨 이슈들과 문학운동 등의 문화사적 고찰이 문학사 서술의 주요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다.

3) 서술 대상의 이념적·장르적 편향성 조절

대부분의 문학사는 전문적인 문학연구자에 의해 서술된다. 전문적인 연구자란 그가 문학연구의 장 안에서 특정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문학사 서술은 그가 속한 집단의 이념적 지향성이거나, 그가 비평가 문학연구에서 견지해온 문학관, 장르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국문학사는 서술자에 따라 상이한 역사관과 문학관, 서술방식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이를 교육용 문학사에서 그대로 수용할 경우 문제적 지점으로 남게 된다. 교육용 문학사의 성격상 서술의 이념적 편향성은 일정 정도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문학사 서술 방향을 채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다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화’라는 용어가 역사연구에서 급부상한 까닭은 그 용어가 ‘이데올로기’와 ‘사회’의 대체어로서 학문적인 시의 적절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의적인 플롯의 역사 서술이 어려워지면서 역사학은 정치사나 사회경제사가 아닌, 문화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서술방식 역시 전체 구조를 가설적으로 상정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경성적 자료 검토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삶과 경험을 표현하는

23) 김윤식, 「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문학사논고』(법문사, 1973), 455-456쪽.

연성 자료에 입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문학사 서술에서도 이러한 문화사적 접근은 특정한 문학관이나 장르관에 의한 편향성을 줄이는 데 유효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는 민족문학이 항일문학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전제²⁴⁾하에 세대소설을 “사소한 사건에나 관심,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게 하는 폐해”를 갖는 소설로 평가절하한다. 반면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는 박태원 등의 세대소설을 여금, 인텔리 등의 인물군을 통해 서울 시민의 현실인식과 ‘거대한 풍속화’를 보여주는 소설로 판단하고 그 문학사적 의의를 고평하고 있다. 문화사적 시각에서 보면 세대소설은 당대의 문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 문학적 결과물인 동시에 당대의 풍속과 삶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로 평가²⁵⁾될 수 있다. 작가의 세계관과 작중인물의 세계관을 등치시키고 그것을 특정한 이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문학적 소재나 주제, 사회문화적 요소의 계열을 작품의 미학성과 연계 지을 때 교육용 문학사 서술의 편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이념적 편향성뿐 아니라 장르나 매체, 특정 작가에 대한 편향 역시 문화사적 접근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1926년에 이미 영화라는 매체가 소설 장르를 넘어섰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문학사에 영화가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데도 소설과 영화의 관련성이나 기타 대중 매체와 문학 양식 사이의 관계²⁶⁾ 등에 대해서는 문화사적 서술이 충분히 배려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또한 장르가 주요한 문학사 서술의 축이 되다 보니 특정 장르의 변천사는 충분히 서술되지만 장르 간의 소통과 상호 교섭에 대해서는 포괄하기 어려웠고, 특히 전체 장르의 비중으로 따졌을 때 많은 문학사에서 희곡 장르에 대한 서술이 소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념적·장르적 편향성을 줄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매체문화의 영향 등을 보다 풍부하게 서술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의 역동성을 통찰하게 하는 것 역시 교육용 문학사 서술의 한 방향이라 본다.

24) 조동일은 민족문학의 성격과 책임을 의식한 결과 이상의 「날개」를 아기장수 이야기와 바로 연결 짓기도 하고, 같은 시기 여성작가라도 백신애보다는 강경애에 압도적인 서술 분량을 할애했다.

25) 다만 이러한 문화사적 의의가 작품 자체의 서사구조적 미학 속에서 구현될 때 개별 작품의 문화사적 의의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6) 김동식, 앞의 글, 103쪽.

III.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 서술 내용 : 1930년대 소설사를 예로 하여

이 장에서는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 서술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서술 내용을 구안하되, 서술 대상의 범위는 1930년대 소설사로 제한하고자 한다. 한국문학사 전체를 문화사적 시각에서 다시 기술한다는 것은 광범위한 작업이므로, 식민지 치하 근대적 문화와 삶이 본격적으로 문학적 형상화의 대상이 된 1930년대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근대문화를 식민지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특수성으로 인해 1930년대 문학은 독특한 문학적 대응의 양상을 보여주며 한국문학사 전체에서 결정적 지점을 점유한다.

또한 1930년대는 현재 문학교실에서 교육되고 있는 정전적 위치의 작품들²⁷⁾이 활발하게 생산된 시기이며, 카프의 해산과 함께 지배적인 문학적 경향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여러 소설적 관심과 경향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던 시기²⁸⁾이기도 하다. 1930년대 초반까지 우리 소설을 주도했던 계급문학이 퇴조하면서 나타난 문학적 현상은 관심의 다원화²⁹⁾로 도시소설, 예술가소설, 농민소설, 가족사소설, 역사소설 등 다양한 유형의 소설이 대거 등장하였다.

문학적 태도, 문학적 방법, 문학적 이념의 차원에서 복잡다기한 경향들이 공존했던 1930년대³⁰⁾는 문학사와 문화사의 다층적 관계를 발견하고 서술하기 용이한 시기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텍스트

27) 7차 문학교과서 18종에 수록되어 있는 1930년대 소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고향」(이기영) 1종, 「광염 소나타」(김동인) 3종, 「금 따는 콩밭」(김유정) 1종, 「김 강사와 T교수」(유진오) 2종, 「까마귀」(이태준) 1종, 「날개」(이상) 10종, 「대수양」(김동인) 1종, 「동백꽃」(김유정) 12종, 「땡땡」(김유정) 1종, 「만무방」(김유정) 4종,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13종, 「모범 경작생」(박영준) 2종, 「무녀도」(김동리) 8종, 「무영탑」(현진건) 1종, 「복덕방」(이태준) 4종, 「봄봄」(김유정) 4종, 「붉은 산」(김동인) 2종, 「사랑 손님과 어머니」(주요한) 4종, 「사하촌」(김정한) 3종, 「산」(이효석) 2종, 「삼대」(염상섭) 4종, 「상록수」(심훈) 3종, 「성황당」(정비석) 1종,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7종, 「아랑의 정조」(박종화) 2종, 「인간 문제」(강경애) 2종, 「임궫정」(홍명희) 2종, 「제1과제1장」(이무영) 1종, 「치수」(채만식) 7종, 「탁류」(채만식) 1종, 「태평천하」(채만식) 13종, 「화랑의 후예」(김동리) 1종.

28) 김종육, 「여전히 문제적인 30년대 소설들」, 『민족문학사연구』 16(2000), 386쪽.

29)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313-315쪽.

30) 김종육, 앞의 논문, 386쪽.

내적 지점에서 당대의 문화와 풍속, 제도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포착될 수 있는 소설 장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의 내용을 크게 ① 텍스트 내부: 소설에 형상화된 문화의 사적 흐름, ② 텍스트 내부-외부: 문화와 작가의식, 소설 형식 간 관계의 사적 흐름, ③ 텍스트 외부: 소설 생산과 수용문화의 사적 흐름의 세 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세 향의 설정은 문화사와 문학사의 관계를 문학 속에 형상화된 문화, 문학 형식에 작용하는 문화, 문학 소통에 관계하는 문화의 세 층위로 나누었던 II.1.의 논의를 적용한 것이다.

1. 텍스트 내부: 소설에 형상화된 문화의 사적 흐름

소설 속에는 풍부한 문화적 레퍼토리가 잠재한다. 문학사가 문학작품을 통해 문화적 레퍼토리의 계보를 구성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 경우 개별 작품에 대한 사적 평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시대별로 엄연한 형상화의 대상으로서 문화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화의 사적 흐름을 읽는 것은 단순히 연대기순으로 문학사를 훑는 것보다 텍스트의 숨겨진 지점들을 풍부하게 탐색하게 해준다. 가령 이광수의 1917년 작 「무정」에서 여학생 선행은 지식인 청년 이형식의 동반자이며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 소설 속에서 여학생은 구매할 수 있는 사치품 또는 장식품으로 그려지는 경우³¹⁾가 많아진다. 여학교라는 사회제도가 생겨나고 이에 따라 여학생들이 패션이나 연애, 사회적 활동 등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패터низ화되면서 일종의 유행을 형성하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마침내 하나의 ‘여학생’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여학생 ‘문화’는 여학생 ‘제도’나 여학생 ‘사회’라는 개념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구체성과 일상성의 영역에까지 육화되어 작동한다.

특히 문화는 그것이 작동하는 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이에 착안하여 소설에 나타나는 시골과 도시의 대조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문학사를 구성³²⁾하기도

31) 강심호, 「유행, 대중적 감수성, 문학의 변모」, 『한국현대문학연구』 12(2002), 76쪽.

32) Raymond Williams, *The Country and the City* (London: Cox&Wyman Ltd., 1973).

하였다. 1930년대 소설 역시 도시와 농촌이라는 상반된 공간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근대적 풍속 체험이 드러난 것은 도시 쪽이다. 농촌의 경우는 주로 민족 신문을 통해 전개된 계몽운동의 대상으로 그려지거나 지식인의 귀향처로 형상화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탁류」 속 ‘군산’처럼 도시화되거나 김유정 소설에서처럼 금광 찾기의 대상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 부각되었다. 도시 혹은 도시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화들을 속속 소설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금광이나 미두³³⁾처럼 투기에 가까운 자본거래가 일어나고 사적인 연애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차와 패션이 도시인들의 삶 속 깊이 침투되어오기 시작하였다. 채만식의 「탁류」(1937-1938)는 미두를 소설의 소재이자 하나의 시대적 상징으로 부각시킨 작품인데 미두는 현물거래와는 관련 없는 청산거래 방식을 통해 결제의 권리만을 사고파는 시장³⁴⁾을 의미한다. 미두로 인해 파산하는 정 주사의 모습을 통해 독자는 왜곡된 자본거래의 허상과 실체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집단적 근대화의 환상을 충족시켰던 기차를 넘어 개인적인 유희와 연애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차³⁵⁾가 김남천의 소설 「사랑의 수족관」(1939-1940) 등에서 주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개인의 개성이 자각되면서 패션과 화장품, 음식 등이 하나의 기호로 소설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호들에 대해 과도할 정도의 나열적 서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개인의 개성은 익명의 타자에게 관찰되기 위해 공적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방, 카페, 거리 등이 소설 속 공간으로 자주 등장하게 된다.

1930년대 소설에 형상화된 문화의 사적 흐름은 다른 시대 소설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필 때 더욱 명확해지기도 하지만 한 편의 소설 속에서도 감지될 수 있다. 1930년대에는 가족사소설이나 세태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는데, 특히 「삼대」(1931)나 「천변풍경」(1936) 같은 소설을 통해

33) 금광광, 미두광, 잡지광, 만주광 등이 조선의 4대광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우석, 「현대 조선의 4대광」, 『제1선』(1932.9.).

34) 유봉희, 「채만식 탁류 연구-미두장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논문(2008), 71-72쪽.

35) 김성환, 「1930년대 대중소설과 소비문화의 관계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2(2002), 133-134쪽.

세대별로 육화하고 있는 문화 간 갈등이나 급속히 변모해가는 풍속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염상섭은 서울 중산층의 의식을 유장한 문체로 그려낸 작가인데, 특히 「삼대」에서는 족보와 사당의 구문화 보수파로 그려지는 조의관, 신식문물을 수용하고 교육사업을 하면서도 도덕적 파행을 일으키는 조상훈, 일본 유학파이자 현실적·중립적 인물인 조덕기, 삼대의 관계 형식을 통해 각 세대의 풍속과 문화, 나아가 윤리감각이 교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이러한 관계 형식을 매개하는 주요소는 유교적 질서가 아닌 돈인데, 조의관이 조상훈을 비난할 수 있는 것도 도덕적 우월성이나 가부장적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이며, 조상훈은 유산상속에서 배제된 후 아들 앞에서도 권위를 잃는다.

“무어 어째? 날더러 먹여 살리라니? 걱정 마라. 아니꼽게 내가 무슨 총찰이나? 그러나 정미소 장부는 이따라도 내게로 보내라.”

부친은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라서도 못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것은 내가 찾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게 두시면 어디 갑니까?”

“이놈 불한당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돈 몇백 원도 못 치러주겠다는 놈이 무어 어째?”

부친은 신경질이 났는지 별안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덕기가 벌떡 일어서니까 주먹이 어깨에 맞았다.³⁶⁾

이렇듯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화폐가 새로운 가치척도로 등장하면서 유교적 윤리나 순결한 연애의 이상이 깨어지고 그 빈자리를 채운 속악한 현실이 형상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대표작 「날개」는 도시인의 정신적 파산과 불구적 관계를 포착해낸 작품으로, 1936년 《조광(朝光)》지에 발표되었다. ‘나’는 33번지에서 아내와 함께 살지만, 실제로는 아내와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아내는 손님이 주고 간 돈을 다시 ‘나’에게 주지만 ‘나’는 화폐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내가 먹여온 약이 수면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오 사이렌을 들으며 다시 한 번 날고자 다짐한다. 작중인물의

36) 염상섭, 『삼대』(문학과지성사, 2004), 575쪽.

복합적인 내면의식과 그 서술방식의 독특성을 통해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문제적 과도기를 그려낸 작품인데, 이처럼 화폐를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되어가는 근대문화의 체계 속에서 소외된 잉여인은 이 시기 다른 소설에서도 빈번하게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잉여인의 집단으로 박태원은 여급과 예술가를 꼽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시대문화의 표면과 이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이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³⁷⁾

이처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서술은 단순히 시류에 그친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상의 본질을 간파하는 감각과 시선의 변화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³⁸⁾가 되어주기도 한다. 문학을 문화적 텍스트 그 자체로 치환하거나 문학에 나타난 채말한 문화적 요소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미 있게 소설사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재나 주제의 계열사³⁹⁾를 학습자들이 찾아내고 그것이 문학사 속의 문화사적 풍경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습자들이 접하는 다른 문학 텍스트 속에서 문화사적 계보를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텍스트 내부-외부: 문화와 작가의식, 소설 형식 간 관계의 사적 흐름

III.1.에서는 교육용 문학사의 서술 내용으로서 소설에 형상화된 문화

37)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문학과지성사, 2005), 117-118쪽.

38) 김춘식, 「식민지 도시 경성과 모던 서울의 표상」, 『한국문학연구』 38(2010), 49쪽.

39) 이 경우 무관해 보이던 텍스트들이 새로운 사적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예에 대해서는 김동식, 앞의 글, 99쪽 참조. “여학생이라는 주제에 주목함으로써 춘원의 「무정」에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경유해서 이상의 「실화」에까지 도달한다. 또한 카프 내부의 돈키호테적인 인물인 김팔봉의 소설 「장덕대」와 카프의 최고 소설가인 이기영의 「설」, 그리고 카프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이 한 편의 글에서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새로운 해석의 공간을 창출해낸다.”

의 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텍스트 내부에 재현된 문화적 요소들만을 탐구하는 것이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소설사 내용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문화의 흐름이 텍스트의 내부와 외부로 매개하며 특정한 소설 형식을 창출하는 과정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즉, 한 작가가 시대적 문제의식을 안은 채 바라본 문화가 어떤 소설 형식으로 표현되었는가가 서술될 것이다. 임화가 말했듯 시대의 양식은 단순히 하나의 특이한 양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인의 고유한 체험과 생활에서 형성된 시대정신이 자기를 표현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⁴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1930년대의 문화경험이 작가의식의 지향성을 방향 짓고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교육용 문학사 서술의 내용으로 구안할 것이다.

근대화의 경험이 나름대로 축적되면서 미두나 금광, 다방과 카페, 여학생, 잡지 등의 문화현상이 생겨났고, 개별 작가나 작가 집단들은 이러한 문화현상들 속에서 창작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러면서 작가나 작가 집단들마다 문화현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이나 입장을 표방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소설 형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두열풍이나 황금광 시대에 대해 김유정의 소설 「금 따는 콩밭」(1935), 「노다지」(1935), 「금」(1938)은 아이러니한 유머의 태도를 견지했으며, 채만식의 「탁류」는 풍자적이면서도 통렬한 비판적 시각을 취하였다. 이태준의 「영월영감」(1939)에서는 금광의 환상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인물에 대해 관찰자적 연민의 시선을 보이기도 한다.

많은 작가들이 도시, 특히 경성에서 전문적인 창작활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경성의 풍속은 작가들의 생활세계에 깊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중 1930년대를 휩쓴 다방문화는 문화와 소설 형식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다방과 카페, 그리고 여급 등이 등장하는 1930년대 소설은 양적으로 매우 풍부한데, 이는 다방이라는 공간이 작가들의 자기 인식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다방이 예술가들의 삶으로 파고든 것은 1930년을 전후하여 예술가들이 경성에서 직접 다방을 경영하면서부터이다. 영화감독 이경손의 다방 ‘카카두’, 소설가 이상의 다방 ‘제비’ 등은 다방문화에 의해 주도되다시피 한 1930년대 문인들의 풍속도를 이루는 주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신문기사에는 이러한 문화현상

40) 임규찬 외 편, 앞의 책, 384쪽.

과 이른바 여급문학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연애는 어쩔지 삼각형을 그리려는 경향이 있다 저 피타고라스도 미처 생각지 못한 성의 물리다. 그런데 현대의 모든 연애의 변의 하나는 카페나 빠에 버치고 있다는 설도 있다. 그 증거로는 文章 특집 『三十三人集』의 단편의 대다수가 여급을 취급했다.⁴¹⁾

문제는 이러한 문화현상이 단순히 소재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소설의 형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다방은 타인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유사한 집단끼리의 문화를 형성하게 해주며 나아가 타인의 말과 행위를 장시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다. 거리에서 스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관찰자와 타인은 서로의 맥락을 자세히 알 수 없으며, 다만 다방이라는 공적이면서도 사적인 공간 안에서 짧은 시간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근대적 관계 형식은 관찰한 바의 기록이라는 독특한 소설 형식을 산출시킨다. 근대를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문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1930년대 후반의 세대소설과 김남천의 관찰문학론에서 절정을 이룬다.⁴²⁾ 이러한 1930년대 다방문화와 소설 형식 간의 관계는 이후 다방이 등장하는 소설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 사적 특징이 확연해진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이청준의 소설 「예언자」(1977) 속에서 다방 ‘여왕봉’은 가면을 쓰고 만나는, 대학생들의 경박한 유흥문화를 상징하고 2000년대 김정옥의 소설 「나가사키 내 사랑」(2007)에서 ‘스타벅스’는 부유한 여성과 아르바이트 청년이 불륜관계를 시작하는 공간이 된다.

공간문화 이외에도 영화와 같은 매체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대중적 감수성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화현상을 포착한 박태원은 영화를 소설 형식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는데, 가령 「애욕(愛慾)」(1934)과 같은 소설을 보면 대상의 외양을 영화배우의 이미지와 비교해서만 인식하는 관찰자가 등장한다. 그의 대표작 「천변풍경」(1936-1937)에서는 마치 카메라의 포커스를 이동하듯이 다양한 인물들을 포착, 전시하면서 그러한 인물들이 대표하는 특정한 유형이나 계급의 특성을 기록한다. 이러한 과정이 세대소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역시 관찰이라는 시선이

41) 공명, 「여급문학」, 《조선일보》 5면, 1939년 8월 8일자.

42) 노지승, 「1930년대 작가적 자기 인식과 그 문학적 생산력에 관한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7(1999), 169-170쪽.

외부로 향하면서 성립된 형식이라 볼 수 있다.

문화현상이 작가의식을 경유하여 특정한 소설적 형태를 얻는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영론을 넘어서게 된다. 문화와 작가의식, 소설 형식 간의 관계가 변화해온 과정을 살핌으로써 형식과 내용이 분리된 감상을 막고 소설 장르가 나름의 형식적 모색을 거듭해온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문화현상과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떠한 소설 형식을 통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 그러한 적절성을 띤 현재의 소설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탐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텍스트 외부: 소설 생산과 수용문화의 사적 흐름

표면적으로만 보았을 때 한국문학사가 텍스트 외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교육용 문학사에서는 사회역사적 사건과 문학정전들을 곧바로 연결 짓는 서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하나의 문학작품이 생산되고 수용되었던 문학현상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은 드물다. 문학이라는 활동이 수행되는 과정 역시 하나의 문화사를 구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텍스트 내부에 형상화된 문화, 텍스트 내부-외부를 매개하는 문화와 함께 텍스트 외부에 작용하는 문화로서의 문학현상 역시 문학사 서술의 내용으로 제안될 수 있다. 문학, 특히 1930년대 문학은 문인집단들의 경합과 문학논쟁, 문학작품이 발표되는 매체의 성격과 독자집단, 근대적 문학제도 등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연관 속에 놓여 있다. 등단, 출판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던 1920년대 초까지도 문학은 다소간 취미나 교양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이 발간되었고, 《신동아》, 《조광》,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가 간행되면서 저널리즘의 전성시대가 펼쳐졌다. 이러한 매체들은 이중구속에 시달렸는데, 하나는 제한된 문학시장 안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판매경쟁이고, 하나는 검열에 대한 의식이었다. 잡지의 편집자들에게는 이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특화된 문학체제(literary system)를 구축하는 일이 핵심적 과제⁴³⁾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의

성격은 그러한 매체에 의해 발표된 문학작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930년대의 문학적 경향이 단일한 것으로 수렴될 수 없는 까닭도 일정 부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1930년대는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학논쟁이 탄생한 시기이기도 한데, 이는 카프 해산 이후 문단구조가 몇몇 문인집단에 의해 재편되고 있었다는 점, 정치적 정론 기사가 검열로 인해 제한되자 그 역할을 문예비평이 대신하게 되었다는 점⁴⁴⁾ 등에서 비롯된다. 1930년대 신문 학예면 지상에서 벌어진 안막, 한설야, 안함광, 임화, 김남천 등의 비평논쟁이나 기고 평론들⁴⁵⁾이 이를 증명한다. 이후까지 이어진 순수문학 논쟁은 문학 자체의 이종적 속성에 기반한 대립이기도 했지만, 당대의 저널리즘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 논쟁이 계속 지속된 것은 논쟁을 지속시키려던 편집진의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사들의 언행과 글은 상당한 대중적 관심을 얻었고, 문사들끼리 일종의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전술했던 다방문화 등을 통해 구인회와 같은 새로운 문인세력이 결성되고 이 구인회의 구성원들 중 신문 학예면 담당자들(《동아일보》의 이무영, 《조선일보》의 김기림, 《조선중앙일보》의 이태준 등)이 있었기에 사교가 곧 정치적 문단 세력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조선일보》를 무대로 1930년대 이후 전개된 고전부흥론은 카프 해체로 전환기를 맞이한 당대 현실에서 한국 고전문학의 탐구와 계승을 통해서 문학을 재건하기 위한 방책이었고, 그러한 관심이 현실화되어 상고주의적 경향의 잡지 《문장》이 출현하게 되었다. 반대 방향의 흐름도 있었는데 철저히 상업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신문 잡지의 치열한 사세확장으로 인해 주요 일간지에 연평균 40~50편 이상의 소설이 발표 게재되었고, 대개 그것들은 상업성을 의식한 장편소설⁴⁶⁾이었다. 저널리즘의 확대와 근대적 문화의 경험으로 인해 독자들은 문학독서의 오락적 기능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에 소설은 장편 경향이나 다양한 하위 장르적 서사물들⁴⁷⁾로

43) 유석환,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근대문학」, 천정환 편저,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283쪽.

44) 한국현대문학회, 『한국문학과 풍속』 1(국학자료원, 2003).

45) 조영복, 「1930년대 신문 학예면과 문인기자 집단」, 『한국현대문학연구』 12(2002), 163쪽.

46) 윤정현, 「30년대 애정통속소설의 갈등 양상」, 『어문학』 60(1997), 421쪽.

47) 천정환, 「1920~30년대 소설독자의 형성과 분화과정」, 『역사문제연구』 7(2001), 96쪽.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태준, 박태원 등과 같은 구인회 멤버들도 역사소설 창작이나 고전소설 번역에 나섰는데, 이는 문단 전반의 전형기적 상황이나 고전부흥론의 발흥 등의 움직임과도 관련⁴⁸⁾이 있었다.

이러한 소설현상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은 각 시대별로 문학이 가졌던 문화적 위치와 역할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학이 세상의 변화와 동떨어진 고립적 행위가 아님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소설 생산과 수용의 사적 흐름을 문화사적 접근을 통해 살피는 것은 소설이 단순히 당대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소설을 읽고 쓰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흐름을 형성해나가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다. 또한 수용자의 요구와 태도 역시 문학현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요인임을 문화사적 사실을 통해 살핌으로써 책임 있는 응답자로서 독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IV. 맺음말

교육용 문학사가 문학교육 일반의 목표인 문학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서술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특화된 서술 방향과 내용 구성이 제안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의 서술을 제안하고 서술의 방향과 내용을 구안하였다.

문학사 서술에서는 문학 텍스트 내적 지점뿐 아니라 그 텍스트의 사적 의미를 원근법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외재적 지점, 즉 일반문화사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학사와 문화사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문학사 기술은 어느 정도 환원주의적 오류의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학사와 문화사의 관계 양상을 ① 문학 속에 형상화된 문화, ② 문학 형식에 작용하는 문화, ③ 문학 소통에 관계하는 문화 등의 세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 서술의 방향으로는 시대적 감수성의 전달, 역사에 대한 문학적 대응 경향과 역동적 구도 서술, 서술 대상의 이념적·장르적 편향성 조절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서술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용 서술 내용을 구안하되 서술 대상의 범위는 1930년

48) 김윤식, 「고전론과 동양문화론」,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일지사, 1976).

대 소설사로 제한하였다. 1930년대 문학은 사회문화에 대한 독특한 문학적 대응의 양상을 보여주고, 문학적 태도, 방법, 이념 등에서 다양성을 띠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설 텍스트 내부에 형상화된 1930년대 문화의 다양한 요소와 그 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미두나 금광, 여학생, 자동차, 패션 등의 문화현상이 당대 소설 속에서 형상화된 방식과 당대의 풍속 변화에 따라 교체되어가는 시대적 가치관 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당대 문화와 작가의식, 소설 형식 간 관계의 사적 흐름을 추적하였다. 다방이나 카페, 근대적 건물이나 거리문화가 형성되면서 작가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집단을 형성하고 관찰이나 기록 같은 독특한 현실 파악의 형식을 익혔다. 이는 그들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쳐 심리소설이나 세태소설 등의 내용과 기법을 형성하였다. 또한 1930년대 소설 생산과 수용문화의 사적 흐름을 서술하되, 문인집단들의 경합과 문학논쟁, 문학 작품이 발표되는 매체의 성격과 독자집단, 근대적 문학제도 등을 중심으로 그 문학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다층적 서술을 통해 교육용 문학사는 다양한 문화적 시스템과 구체적인 삶의 양식들을 가로지르며 학습자의 풍부한 감상을 자극하고, 학습자가 개별 문학경험을 문화사적 지리감각을 통해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동식, 「풍속·문화·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 2001, 71-105쪽.
- 김성환, 「1930년대 대중소설과 소비문화의 관계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2, 2002, 125-153쪽.
-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 범문사, 1973.
- 김은정·류대근, 『청소년을 위한 한국고전문학사』. 두리미디어, 2010.
- 김종욱, 「여전히 문제적인 30년대 소설들」. 『민족문학사연구』 16, 2000, 386-397쪽.
- 김지영, 「한국과 프랑스의 문학교과서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4.
- 노지승, 「1930년대 작가적 자기 인식과 그 문학적 생산력에 관한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7, 1999, 151-184쪽.
- 박현호, 「문학' 史' 없는 시대의 문학연구」. 『역사비평』 75, 2006, 92-112쪽.
- 양호환, 「역사 서술의 주체와 관점」. 『역사교육』 68, 1998, 1-26쪽.
- 유봉희, 「채만식 타류 연구-미두장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유석환,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근대문학」. 천정환 편저,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 윤정현, 「30년대 애정통속소설의 갈등 양상」. 『어문학』 60, 1997, 419-434쪽.
- 이명구, 『이야기 한국고전문학사』. 박이정, 2007.
- 임규찬 외 편,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 장덕순, 『이야기 국문학사』. 새문사, 2001.
- 정출현 외, 『고전문학사의 라이벌』. 한겨레출판, 2006.
- 채호석, 『청소년을 위한 한국현대문학사』. 두리미디어, 2009.
- 천정환, 「1920-30년대 소설독자의 형성과 분화과정」. 『역사문제연구』 7, 2001, 73-100쪽.
- 한국현대문학회, 『한국문학과 풍속』 1. 국학자료원, 2003.
- Burke, Peter 저, 조한욱 역, 『문화사란 무엇인가』. 길, 2006.
- Fuchs, Eduard 저, 이기웅 외 역, 『풍속의 역사』 I. 까치, 1988.
- Whitehead, Alfred North 저, 오영환 역, 『교육의 목적』. 궁리, 2004.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일반 문학사 서술과 대별되는 교육용 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하였다. 교육용 문학사가 문학교육 일반의 목표인 문학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서술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특화된 서술 방향과 내용 구성이 제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학사는 문학의 역사인 동시에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의 지평과 역사의 지평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내장한다. 여기서는 그 매개항으로 문화를 상정하고 문화사적 접근이 문학사 서술에 유의미함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사와 문화사의 관계 양상을 ① 문학 속에 형상화된 문화, ② 문학 형식에 작용하는 문화, ③ 문학 소통에 관계하는 문화 등의 세 층위로 나누어 살폈다.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 서술의 방향으로는 시대적 감수성의 전달, 역사에 대한 문학적 대응 경향과 역동적 구도 서술, 서술 대상의 이념적·장르적 편향성 조절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서술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용 서술 내용을 구안하되 서술 대상의 범위는 1930년대 소설사로 제한하였다. 1930년대 문학은 사회문화에 대한 독특한 문학적 대응의 양상을 보여주며 문학적 태도, 방법, 이념 등에서 다양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 문학사는 문학의 내재적 특성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은 오히려 문학의 미학적 형식과 개성이 집단적 삶의 양식과 관계하며, 문학사가 삶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는 다양한 문화적 시스템과 구체적인 삶의 양식들을 가로지르며 학습자의 풍부한 감상을 자극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개별 문학경험을 문화사적 지리감각을 통해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11. 3. 18.

수정일 2011. 5. 2.

게재 확정일 2011. 5. 9.

주제어(keyword) 문학사(history of literature), 문화사(history of culture), 문학사 교육(education of literature history), 1930년대 소설(1930-s fiction), 문학사 서술(description on the history of literature)